

# 경제·경영서로 불황극복 꾀한 상반기 출판

납본 독려로 발행종수 오히려 늘고...비소설 분야가 베스트셀러 상위권 휩쓸어

98년 상반기 출판계를 강타한 최대 이슈는 사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역시 IMF 사태. 작년말부터 몰아닥친 IMF 한파의 여파로 출판계는 잔뜩 위축되었다. 종이값 및 제반 제작비의 상승, 가정경제 위축으로 인한 문화비 절감 등 안팎의 원인이 모두 출판계를 압박했다. 그런데,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집계한 올 상반기 출판통계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발행종수에서 1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출판사 상대로 대대적인 납본 독려

출협측은 실제로 발행종수가 늘어났다기보다 외적인 원인이 더 컸다고 밝힌다. 새정부 들어서면서 느슨했던 행정 절차에 고삐가 바짝 당겨진 것. 문화관광부는 납본된 발행종수와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을 서로 비교·실사했고, 각 출판사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납본 독려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제까지 납본에 대해 의무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국정교과서가 들어오면서 전체 종수를 늘리는 데 큰 몫을 했다.

교육학 분야를 포함한 사회과학 종수는 예년에 비해 55.7% 증가하고, 부수(초판 발행 기준)로 따지면 놀랍게도 16배가 불어났다. 그 결과 전체 종수에서 사회과학 분야를 빼면 예년에 비해 10.6% 정도의 증가세만

## '98 상반기 출판계를 강타한

최대 이슈 역시 IMF사태.

제작비 상승, 문화비 절감 등

안팎의 원인이 출판계를

압박했다. 하지만 새정부의 납본

독려로 통계상 발행종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베스트셀러에서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비소설이

상위권을 휩쓸 가운데 분야별로는

경제·경영서가 약진을 보였다.

을 보여준다. 납본 독려로 인한 증가분을 고려하면 제자리 걸음 정도.

재미있는 것은 종수가 늘었는데도 발행부수를 따지면 사회과학 분야를 제외하고 오히려 24%가 감소했다는 사실. 제작비 상승과 경제의 위축으로 재고 없이 말뚝하게 출판사를 운영하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철학·예술분야 등에서 다품종 소량 판매 현상이 두드러졌다. 가계경제와 밀접한 학습참고서분야와 아동분야가 각각 32.3%, 23.6% 줄어들었다. 문학분야도 종수에서는 27.0%로 비교적 큰 폭으로 성장한 데 비해



부수는 오히려 4.4% 떨어졌다.

## 인문서 퇴조, 경제·경영서 약진

베스트셀러 지형도 역시 IMF 한파 자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서적의 전체 판매량도 줄어들었고, 베스트셀러의 경우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교보문고가 최근 발표한 '98년 도서판매경향 총괄분석'은 올 상반기 도서 총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8.4%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베스트셀러에서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져 종합 10위권에 든 책의 총 판매량이 28,795권으로 지난해 상반기 50,237권에 비해 43%가 감소했고, 종로서적 역시 10위권 안에 든 책의 판매량이 예년에 비해 32.8% 떨어졌다고 한다. 영풍문고 자료는 10위권 판매량이 지난해 39,124부에서 29,254부로 25.2% 줄었다.

분야별로는 인문·문학부문이 퇴조하고, 경제·경영분야의 많은 책이 베스트셀러에 등재되었다. 시내 대형서점(교보·종로·영풍·을지)과 서점조합연합회가 집계한 상반기 베스트셀러 50위권에 공통적으로 든 인문서는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 실록》이 유일하다.

이에 비해 경제·경영서는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이 땅에 태어나서》, 대우그룹의 경영을 분석한 《세계가 열린다 미래가 보인다》, 외국의 저명 경제학자 부즈 앨런과 해밀턴이 한국 경제를 진단한 《한국보고서》, 경제상식을 알기 쉽게 풀어쓴 《손바닥 경제》, 《맥킨지 보고서》 등 10권 가까이 올라

불과 2종 안팎을 오가던 지난해와 대조된다. 특히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재취업 및 창업을 돕기 위한 책이 200여종 이상 나와 경제 현실을 반영했다.

문학부문은 여전히 강세. 대형서점 집계 베스트셀러 10위권 내에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아내의 상자》, 《하늘이여 땅이여》, 《관계》, 《슬픈 어머니》, 《홍어》 등 각각 3~5종이 올라 있다. 하지만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비소설 분야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종로서적과 서점연합회의 베스트셀러 종합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을지서적 집계에서는 2위, 영풍문고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50위권 안에 든 베스트셀러 가운데는 같은 작가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안도현의 《언어》, 《관계》, 류시화의 책 등 훈훈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많다. 소설도 가난한 시절을 배경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야기가 인기를 끌었다.

올 초 '베스트셀러 만들기'를 위한 출판사의 사재기가 큰 파문을 일으키자 서점조합연합회와 출협이 베스트셀러를 집계했지만 근소한 순위 차이를 빼고 다른 서점의 목록과는 큰 차이가 없다. 전반적으로 경제 압박에 시달린 상반기였지만 신생출판사 '생각의나무'가 《헝그리 정신》, 《익숙한 것과의 결별》, 《만남-은어와 보낸 하루》 등으로 인기를 모아 불황도 기획력으로 뚫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이현주 기자

'98 상반기 (1~5월) 출판통계

구분 분야	발행종수(초판)			발행부수(초판)		
	98	97	증감율(%)	98	97	증감율(%)
총류	192(26)	85	125	290,300(213,300)	156,490	86
철학	527(34)	342	54	1,596,120(34,750)	1,884,440	△15
종교	739(104)	766	△4	1,739,800(371,850)	1,805,470	△4
사회과학	2,278(264)	1,464	56	41,159,904(421,981)	2,412,723	1,605
순수과학	201(37)	176	14	245,795(62,800)	215,000	14
기술과학	1,920(249)	1,572	22	2,349,795(278,298)	2,074,910	13
예술	512(88)	390	31	858,490(142,120)	1,164,550	△26
어학	673(83)	631	27	2,286,500(311,300)	2,475,825	△8
문학	2,146(387)	1,690	27	5,335,080(781,950)	5,580,720	△4
역사	440(165)	471	△7	864,916(261,480)	843,810	3
학습참고	1,778(236)	2,071	△14	27,430,410(2,408,458)	40,513,450	△32
아동	2,088(289)	1,948	7	5,887,050(476,700)	7,711,850	△24
계	13,494(1,962)	11,606	16	90,044,160(5,764,987)	66,839,238	35

· 대한출판문화협회 집계 (괄호 안은 98.6.1~6.29 현재의 통계)